

공동 생활, 청결부터 사수하라

선배맘이 알려주는 기숙사 '잇템'

기숙사 생활을 앞둔 일부 예비 고1들은 입소 준비를 위한 물품 구매로 한창 분주할 때다. 필수적으로 사야 할 품목은 대동소이하지만, 학교마다 시설이나 비치된 물품, 기숙사 규칙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룸메이트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준비물이 무엇인지, 선배맘들에게 들어봤다.

취재 심정민 리포터 sjm@naeil.com 자료 경기도교육청

Reader's Letter

중3 아들이 2월 말에 기숙사에 들어가요. 얼마 전 학교에서 준비물 관련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는 학교라 입소 물품을 빈틈없이 점검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가정통신문에 적힌 항목은 모두 준비했는데... 그 밖에도 필요한 물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_정은주(48·서울 노원구 중계동)

개인 구매 & 준비 항목

학습 도구	노트북 공학계산기 FS570ES PLUS (선배 추천 모델)	개인 의류	속옷, 양말 티셔츠 바지
멀티탭	3~4구 정도 USB 어댑터	신발	운동화 슬리퍼(미끄러움 방지되는 제품 추천)
문구류	A4 용지, 노트 접착용 셀로판테이프 필기구, 풀 가위, 포스트잇 스테이플러, USB 메모리 박스테이프 파일 철(아코디언 파일 추천)	청소용품	물티슈, 걸티슈 쓰레기통(작은 것) 빗자루 세트(작은 것) 막대밀대(필요시 준비)
		상비약	개인 상비약 (학교에 기본적인 상비약은 준비되어 있음) 영양제
목용용품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 (물 빠지는 것) 샴푸, 린스 비누, 치약 양치 컵, 샤워 불 면도기, 드라이기 빗, 손톱깎이	기타용품	책가방, 보조가방 휴대용 스탠드 충전기, 시계 모기퇴치제 개인 컵, 접이우산 옷걸이 개인 운동용품 (축구화, 농구화 필요시 준비) 개인 약기(필요시 준비) 빨래 바구니, 미니 책꽂이 비상금(동전과 천 원짜리 포함)

* ㉞영재학교의 기숙사 입소 안내 가정통신문이다. 자녀가 해당 학교에 입학 예정인 학부모는 "침구류 중 하나인 토퍼나 세탁용품인 빨래 바구니, 이를름 새긴 타월 등은 학부모 단체에서 공동 구매를 추진해 신입생 모두 일괄적으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선배 맘의 생생 Talk! 꼭 필요한 준비물은?

ITEM 01 침구용품

“토퍼는 될 수 있는 대로 두꺼운 것을 준비하세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침대 프레임만 제공하기도 하고 매트리스가 있어도 아주 얇은 경우가 많거든요. 백화점 이불 코너에 가서 기숙사 입소 시 필요한 토퍼를 두껍게 하고 싣다고 하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맞춤 제작을 해줘요.” _박혜란(46·경기 안양시 호계동)

“이불은 여름을 제외하고 봄과 가을, 겨울에 덮을 수 있는 거위 털 중천 제품을 추천해요. 가볍지만 따뜻하고 사용 안 할 땐 돌돌 말아 접으면 부피가 작아서 침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지요. 물 빨래를 해서 널어도 금세 마르고 먼지가 날 염려도 적어서 기숙사용으로는 제격입니다.”

_김주영(49·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베개 커버를 여러 장 준비해주세요. 남자 아이들은 잘 때도 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얼룩질 때가 많아요. 집에서처럼 자주 세탁해서 갈아줄 수 없으니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_김희진(50·서울 도봉구 창동)



ITEM 02 청소용품

“여자 아이들엔겐 접착식 롤 클리너, 일명 ‘돌돌이’가 필수입니다. 기숙사 자체에서 청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적인 위생 관리나 룸메이트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등교 전 돌돌이로 바닥의 머리카락 정도는 청소하는 게 좋습니다. 침대 위도 깔끔히 정리할 수 있는 만큼 꼭 구비했으면 해요.” _강현정(48·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방이 좁아 환기가 쉽지 않으니 자칫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이때 화장실 전용 악취 제거·소독 스프레이를 번기 안과 주변에 뿌려보세요. 일단 룸메이트가 악취를 맡을 걱정은 덜 수 있어요. 참고로 인체에 덜 유해하다고 알려진 HOCl(미산성 차아염소산) 성분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_최경숙(44·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저희 딸은 주기적으로 일회용 안경 렌즈 티슈를 사 달라고 요청해요. 보통 한 상자에 50장이 들어 있는데 정제수와 에탄올이 주성분이라 안경 렌즈를 닦는 즉시 마르고 투명하게 닦여 좋다고 하네요.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화면을 닦을 때도 아주 편리하대요.” _심선애(51·서울 동작구 사당동)



ITEM 03 세탁용품

“아들 학교는 공동 세탁실을 사용해야 해서 개인 전용 세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가루나 액체 타입은 사용과 관리가 힘들 것 같아 한 번에 한 개씩 사용할 수 있는 캡슐형 세제를 구매했어요. 섬유 유연제는 사용하기 번거롭다고 해서 정전기가 많이 생기는 교복에만 뿌리라고 스프레이 타입으로 준비해줬어요.”

_박명희(50·서울 성북구 석관동)

“빨래를 해도 방이 좁아 널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이런 때는 방문을 활용하는 걸이식 건조대가 정말 좋아요. 문에 쉽게 걸 수 있고 6개의 봉이 장착돼 있어 옷걸이를 활용해 꽤 많은 양을 널 수 있어요.” _최선애(45·경기 파주시 금촌동)

“운동화에서 발 냄새가 날까 봐 신발용 탈취제를 구매했어요. 아들에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체육 수업 한 날에는 탈취제를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름에는 습도가 높아서 신발에 곰팡이가 생길까 봐 신발용 제습제도 챙겨줬는데, 생각보다 뽀송뽀송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_한세희(43·경기 고양시 화정동)



ITEM 04 기타용품

“전자레인지용 식기도 추천해요. 딸 기숙사 휴게실에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가끔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대요. 그런 때 전자레인지용 식기가 정말 유용해요. 집에서 냉동 떡도 가져가는데, 이 식기에 물을 조금 붓고 데우면 말랑말랑한 게 꽤 맛있다고 합니다.”

_고정은(47·서울 송파구 잠실동)

“여름에도 에어컨 온도를 낮게 해 가동하면 감기에 걸리잖아요. 이런 때 경량파카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넉넉한 크기로 구매해 교복 위에 입으면 겨울 추위에도 끄떡없고 늦게까지 공부할 때 어깨에 걸쳐도 부담이 적죠.” _박소현(46·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들 학교는 학기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단체 세탁을 하다 보니 가끔 다른 학생과 빨래가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스탬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옷 라벨에 이름을 찍는데 2~3번 세탁해도 흐릿하게 글씨가 남아 빨래 찾기가 수월하대요. 또 스탬프를 참고서나 교과서, 기타 책의 측면과 윗면에 찍으면 분실할 염려도 적다고 합니다.”

_이숙현(47·서울 종로구 창신동)

